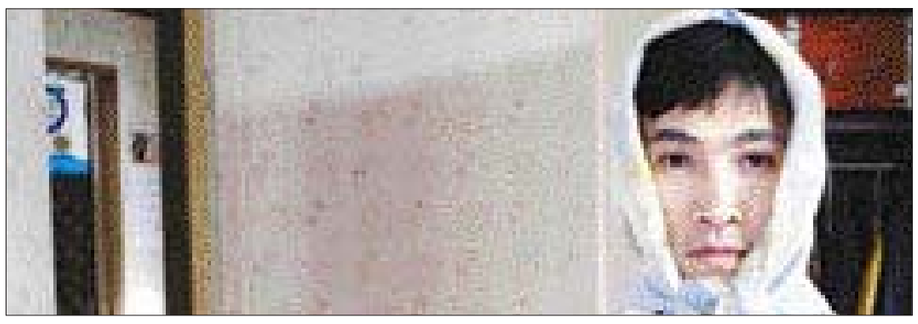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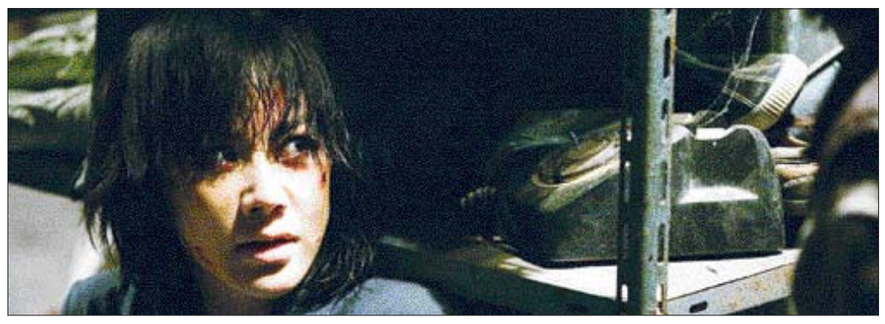

유오성


엄정화

봄 스크린 배우들 변신은 즐겁다

관객들엔 색다른 느낌 주고 '천의 얼굴'로 새로움에 도전

조여정

'배우들의 변신은 즐겁다.'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한 배우들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한 변화는 배우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의미로, 관객들에게는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친구', '챔피언' 등에서 주로 강인한 역할을 주로 맡았던 유오성은 '반가운 살인자'에서 코믹 연기에 도전했다. '반가운 살인자'는 비오는 날이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동네에서 형사와 백수가 범인을 추격하는 내용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다.

김동욱과 투톱으로 출연한 '반가운 살인자'에서 유오성은 2년차 백수 영석 역을 맡아 영화 전반을 이끈다. 영석은 코믹한 표정 속에 애끓는 부성애가 있는 캐릭터로 유오성의 연기 내공이 빛을 발한다. 이 영화에서 유오성은 처음으로 여장에 도전하는 등 코믹 연기를 선보였다.

도회적인 이미지의 배역을 맡아온 엄정화는 원톱 주연을 맡은 스릴러물 '베스트셀러'(4월 15일 개봉)에서 강한 이미지의 여주인공을 연기한다. 엄정화의 스릴러 도전은 2005년 '오로라공주' 이후 5년만이다. 엄정화는 이번 영화에서 좀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돌아온다. 스릴러 퀸에 도전하는 그녀는 7kg 체중감량과 혹독한 식이요법, 한겨울 맨발 투혼 등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로 톡톡한 고생을 했다.

'베스트셀러'는 표절 낙인을 떼고 다시 화려하게 재기하려는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백희수가 우연히 딸 연희의 이야기를 듣고 쓴 소설이 또다시 표절시비에 휘말리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나이를 뛰어넘는 동안으로 귀여운 여동생 이미지가 강했던 조여정은 영화 '방자전'에서 농도 짙은 베드신을 연기하면서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음란서생'의 김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방자전'은 고전 '춘향전'을 새롭게 해석해 방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작품. 춘향 역을 맡은 조여정은 방자 역의 김주혁, 이도령 역을 맡은 류승범과 상반신 노출 등 강도 높은 베드신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적 외모로 '키친'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등에서 세련된 여주인공 배역을 연기해온 신민아는 시대극에 출연, 당찬 연기를 선보인다.

신민아는 '킹콩을 들다'의 박기용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적과의 동침'에서 김주혁과 호흡을 맞춘다.

1950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적과의 동침'에서 신민아는 마을의 당찬 여성 설희 역을 맡아 러시아로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인민군 장교 정웅 역의 김주혁과 사랑을 엮어간다.

코믹한 조역 연기로 눈길을 끌어온 유해진은 '적과의 동침'에서 멜로 연기를 선보인다. 동네 주민 재춘 역을 맡아 스크린에 첫발을 내딛는 수원댁 역의 양정아와 러브 라인을 만들어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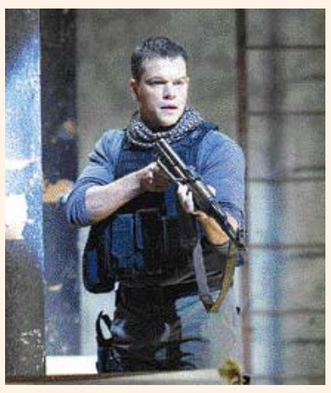
그밖에 조신하고 기품 있는 이미지의 수애는 '심야의 FM'에서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인질로 잡힌 가족을 구해야 하는 DJ역을 맡아 강인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오성 여장으로 코믹 연기 엄정화 스릴러·조여정 베드신

신민아

새 영화 그린존



이라크 전쟁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친 영화로 '본 얼티메이텀' 등 '본 시리즈'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맷 데이먼이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2003년. 미 육군의 로이 밀러 준위는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바그다드로 온다. 밀러 준위의 소대는 익명의

美 패권주의가 저지른 이라크戰 진실 파헤쳐 맷 데이먼 주인공 출연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수색 작전을 펼치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간다.

네번의 작전이 모두 실패로 끝나자 밀러는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 자체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결국 밀러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국방부 요원 파운드스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CIA 요원 마틴 브라운의 도움을 받아 미 정부의 더러운 음모에 다가서기 시작했다.

영화 제목 '그린존'은 바그다드에 위치한 미군의 특별 경계구역을 의미한다.

워싱턴포스트의 전직 바그다드 특파원이었던 라지므 찬드라세카란의 논픽션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블러디 선데이', '플라이트93'을 만든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